

협의회동정

CALS분과위원회 9월행사 관련 회의 개최

우리 협회내의 EDI협의회 CALS 산업 분과위는 '95. 7. 25일 협회 소회의실에서 제 10차 회의를 가졌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김규수 이사를 비롯, 분과위원 9명이 참석

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 9차 분과위원회 회의의 경과보고와 CALS KOREA '95의 초청연사 및 전시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가 논의됐는데, 전시업체로는 국내 11개사, 해외 8개사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pening Session 식순

확정 및 연사배정에 대한 협의와 CLAS KOREA '95의 홍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Opening Session에는 개회사에 홍석현 위원장(중앙일보사 사장), 환영사에 이상희 회장(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이, 축사에 정통부의 경상현장관이 각각 맡기로 했다.

또한 미국 상무성 기술차관보인 Mr. Bachula씨와 미국 칼스산업회 부위원장인 Dr Brent Pope씨가 주제강연 연사로 이 자리에서 배정됐다.

이와 더불어, CALS PACIFIC '96 개최에 대한 문제도 거론되었다.

"CALS KOREA '95" 준비 순조롭게 진행

CALS KOREA '95는 우리 나라에 CALS를 보급확산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해 이어 두번째이다.

컨퍼런스와 전시회가 같이 열리는 CALS KOREA '95는 우리 협회와 중앙일보사가 공동 주최한다.

우리 협회는 한국 EDI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CALS는 한국 EDI협의회 CALS분과위 활동의 일환이다.

CALS분과위는 이제 개념 도입단계를 넘어선 CALS보급확산을 위해 왕성히 활약하고 있다.

CALS분과위는 이번 CALS KOREA '95행사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장에 이상희 국가과학위원장이 선임돼 있다.

조직위는 수시로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18일에서 20일사이 열리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 정보통신부장관, 국방부차관 등 국내 인사외에 미국 상무성기술차관보, 미국 국무성 CALS국장, CALS /ISG 부의장, 아시아 태평양 군수 고위장성 80여명 등의 주요인사들이 참가한다.

한편, 이번 행사의 컨퍼런스에서는 CALS구현전략, CALS기술과 표준, 국가별 CALS구현사례를 주제로 미국, 호주, 일본 등의 25명의 연사가 초청돼 32개 토픽을 발표하게 된다.

컨퍼런스 참가 예정인원은 1,000명(외국인 10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전시회에는 외국 25개업체와 국내 10여개 업체가 총 50부수를 채우게 되며, 이들은 CALS를 구현해 보이고, 도구(Tools)도 선보이게 된다.

관람 예정인원은 약 2,000명으로 예상되는데, 일본에선 참관단을 구성할 정도이다.

CALS 조직위원회 협찬사 등 결정

CALS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 24일 본 조직위 대회장인 이상희 국가과학위원장실에서 "CALS KOREA '95"와 관련하여,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희 대회장, 김규수 조직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 부위원장, 인터콤의 최태영사장, 우리 협회 한태인부장, 권영돈씨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CALS KOREA '95 행사에 앞서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 논의됐는데 개회사와 환영사, 주제발표자들을 선정했으며, 이와 관련 행사협찬 방안이 논의됐다.

행사협찬 대상업체로는 LG그룹, 삼성그룹, 현대그룹, 대우그룹, 포철그룹외 한전계열, 한국통신, 대한항공 등이 결정됐다. ●